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

박 소 영(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요 약

이 연구의 주목적은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실증 데이터로 확인하는 데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인식과 실제 측면에서 동시에 분석하였다.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라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2)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였는가? 연구결과, 방과후 학교 정책은 인식과 실제에서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없었으며,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없었다.

[주제어] 사교육비 경감 효과, 방과후 학교, EBS 수능강의, 정책효과

I. 서 론

베이비붐 세대가 취학한 1960년 대 말부터 사교육이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1968년과 1973년에는 각각 중학교무시험진학제도, 고교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부담 경감을 표방하며 실시되었다. 1980년에는 과외전면금지라는 극단적인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해를 거듭하면서 보충수업 실시 및 방학 중 학원수강 허용 등의 사교육 금지 조치의 보완시기를 거치게 된다. 과외전면금지조치는 불법 과외를 성행하게 하였으며, 보완시기를 거치면서 정부는 지속적으로 과열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1997년 실시된 위성교육방송 또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하나였다. 2000년 이후 과외전면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교육은 전면허용기를 맞게 된다. 이로 인해 음성적 고액과외문제는 상당히 사라지게 되었으나 여전히 사교육비는 국민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고, 해외조기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의 사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들 정도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

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공약이 되어가고 있다.

참여정부 역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사회 구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정부는 2003년 5월 「사교육비대책팀」을 구성하고, 그 결과 2004년 2월 17일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발표 내용에서는 10개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단기 과제로서 1) EBS 수능방송 등 e-learning 체제구축을 통한 수능과의 대체, 2)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한 교과과외 흡수, 3)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4)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으로 탁아수요 흡수 등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2.17). 이후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EBS 수능방송을 포함한 e-Learning 활성화와 방과후 학교 확대 등을 통한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었고 특히 EBS 수능강의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정부 주도의 평가활동 또한 지속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EBS 수능강의와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들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과연 효과적인 것이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전교조는 방과후 학교가 임시 위주로 운영되며 사교육비 흡수 효과는 없다고 주장하였으며(한국일보, 2006.05.17), 일부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EBS 수능 강의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해 회의를 표하였다(정봉주, 2006: 51-53; 최순영, 2005: 83-87; 한겨레신문, 2007.10.30.)

이런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 효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사교육비 경감정책에 대한 실증데이터 부족에 따른 혼란에서 기인한다(엄기형, 2007: 34) 이에 본 연구는 참여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효과를 실증 데이터로 확인하는 데 연구의 주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인식과 실제 측면에서 동시에 분석해보기로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1) 참여정부의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라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2) 참여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였는가?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의 주요 연구집단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정부 정책 중 고등학생에 초점을 둔 EBS 수능강의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정부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본 연구는 인식과 함께 과학적 설계를 통한 실증분석을 토대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사교육비 규모에 대한 영향력을 함께 검증한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II.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 분석은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들 정책의 사교육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사교육비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소개하기보다 본 연구와 보다 직접 관련이 되는 연구를 심층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1. 방과후 학교

가. 방과후 학교의 개념 및 전개과정

방과후 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 개념을 확산시킨 개념으로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인성·창의성 계발 및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하기 위해 기존의 운영주체·교육주체·교육대상·교육내용·교육장소 등을 확대 개방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혁신적 교육체제를 이룬다(김명수 외, 2004: 40). 방과후 학교의 연원은 1995년 5.31 교육개혁보고서에 교육개혁과제의 하나로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김명수, 2004: 40; 김홍원, 2007: 7; 정기오, 2007: 4). 방과후 교육활동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충수업을 폐지하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과외를 학교 안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학생의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보다는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사회경제적 기능의 목적이 보다 강조되었다(김홍원, 2007: 7). 1999년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는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시작된 특기·적성교육의 취지가 입시 위주 교육에 의해 퇴색되어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김홍원, 2007: 7-8).

2003년 말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대체하는 '방과후 학교'의 개념, 성격과 방향과 관련된 제안을 하였고, '방과후 학교'라는 용어는 2004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부터 사용되었다. 이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때 방과후 교육활동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내로 흡수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2. 18).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서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이전과는 다른 성격을 갖게 되는데 첫째, 특기·적성교육으로 수행된 방과후 교육활동에서 금지되었던 중·고등학교에서의 교과 보충학습을 다시 적극 도입하고, 맞벌이 부부 등으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큰 초등학교에서의 보육 프로그램의 도입이 강조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김

홍원, 2007: 8).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방과후 학교를 적극 도입·추진하게 되었으며, 교육인적자원부가 내세우는 방과후 학교의 정책목표는 1) 사교육 욕구 해소 2)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3) 학교의 보육기능 확대 4)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확대 등이다(정기오, 2007:4).

나.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비 경감

이상에서 방과후 학교의 도입과 전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물론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유일한 목표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내세우는 정책 목표 중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므로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초점을 맞추되,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고등학교급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우선, 방과후 학교 도입 단계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의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전망한 연구로 이종재 외(2003)의 연구와 최상근 외(2004)의 연구가 있다. 이종재 외(2003: 19)는 방과후 학교의 도입 단계에서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서 방과후 교육활동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규모 등과 관련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 결과 학교급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학부모의 약 55.6%가 학생 선택권을 전제로 한 교과목 특기 적성교육 실시가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최상근 외(2004: 88-89)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방과후 교육활동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율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율에 비해 높았다.

홍후조 외(2006: 68-69)는 방과후 학교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응답자 중 약 75%가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으나 실제 가능성에 대해 약 31%만이 낙관적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낙관적인 기대비율이 비관적인 기대비율(22%)보다 높아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의하면 200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전국 48개교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한 성과분석 결과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고등학교의 경우 2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홍원 외, 2007b: 55).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비와의 관련성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또다른 조사는 2006년 11월 280개 시범학교의 학부모 7,465명 중 사교육참여 학부모(N=4,245)의 응답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는 '05년 12월과 '06년 10월 사교육비를 비교하였는데,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는 1만 3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서치앤리서치, 2006: 39).

이에 따르면 사교육비 감소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았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에서 약 41.2%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국정브리핑. 2007.03.06; 리서치앤리서치, 2006: 23-24).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280개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 1/4분기와 3/4분기를 비교하였을 때 고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가 5만 8천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국정브리핑. 2006.03.06).

김홍원·진미경(2007)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연구에서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고등학교급 학부모 응답결과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약 42.3%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1.1%)에 비해 높았다(김홍원·진미경, 2007: 54-55). 김홍원 외(2007a)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방과후 학교의 자유수강권이 장기적으로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고등학교의 경우 71.2%로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김홍원 외, 2007a: 158-159).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방과후 학교의 사교육비 경감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EBS 수능강의

가. EBS 수능강의의 역사적 전개와 개요

교육방송은 1980년 과외전면금지조치가 시행되면서부터 'TV 가정교과'를 시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대두되었다. 1989년에는 서한샘 등 명강사를 영입하여 'TV 교과 가정학습'으로 고교생의 주목을 끌고자 노력하였으며, 이후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과외과외 완화 및 과외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위성교육방송이 전면 실시되었고 위성 2개 채널을 학습용 채널로 운영하였다(한건우 외, 2005: 36). 이는 학교 교육을 보충·심화해 과외 수요를 흡수하고 과외 소외지역인 농어촌 학생 등에게도 균등한 교육기회를 준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1998년 10월 중앙리서치가 학생·학부모·교사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EBS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비율은 고등학생 31.8%에 그치는 등 수준별 강의 부족 등의 프로그램 질 부족으로 인해 외면당했다(국정브리핑. 2007.11.03).

2003년 EBS 수능강의를 통한 과외 경감 대책은 제243회 정기국회에서 제시되었고, 주요 내용은 수능 과외를 줄이기 위해 EBS를 활용한 '인터넷 교육 강좌'를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2003년 12월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과거 1997년 EBS 위성교육방송을 도입·추진했던 경험을 살려 EBS 수능강의·인터넷 강의 사업계획을 'e-러닝 프로젝트'로 진화시켜 추진하였다(국정브리핑. 2007.11.03). 이는 EBS 수능강의를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로 구

성하여 수준별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위권, 하위권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 중위권은 수능 방송채널과 인터넷 강의를 통해 접할 수 있다. 2004년 e-Learning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EBS는 지역 차로 인한 교육 서비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한건우 외, 2005: 36-37).

나. EBS 수능강의와 사교육비 경감

EBS 수능강의 도입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EBS 수능강의는 줄기차게 사교육비 경감 의제와 관련을 맺어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4년 11월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능강의 시청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106,000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2.17), 김지하(2005)의 연구에서도 EBS를 시청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평균 과외비를 100,000원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희수(2005: 24)는 2004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EBS 수능강의 실시 전에 비해 가구당 평균 월 34.6만원에서 조사 시점에 가구당 32.6만원으로 2만원 감소하여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관한 집단별 인식결과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4)는 2004년 4월 EBS 수능방송 개시와 함께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EBS 수능강의로 인해 과외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1.0%에 불과하였고 79%의 학생이 변화없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비해 교사집단은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이 58.1%로 학생 집단에 비해 높았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4: 3). 손경애(2004: 192-193)는 2004년 6월 서울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639명을 대상으로 EBS 수능강의의 정책효과성을 연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 실시 이후 과외비율이나 과외비용이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은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희수 외(2004: 414-421)의 연구에서도 역시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대한 응답에서 학부모의 42.3%, 학생의 50% 이상이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전인식 외(2006: 130-131)는 2006년 3월 웹서베이를 통해 EBSi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교 2,3학년 학생과 재수생, 대학 신입생 7,327명과 교사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응답자의 경우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50.0%로 매우 높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5.9%에 불과했다(전인식 외, 2006:131). 교사의 경우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

율이 42.1%였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27.1%여서 학생응답자의 반응과 대조적이었다(전인식 외, 2006: 173). 김병모(2007)는 EBS 수능강의에 대한 효과 인식 연구를 질적 연구로 수행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학부모는 EBS 수능강의가 어느 정도는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와 교장은 EBS가 국가 과외로 자리매김하여 학생들을 더 바쁘게 할 뿐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없다고 응답하였다(김병모, 2007: 243-244).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 EBS 수능강의는 학생1인당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식조사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이런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응답자의 반응이 조사실시기관이나 실시 시기, 조사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III. 연구 방법

1. 표집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¹⁾ 조사는 2006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표집은 전국 고등학생을 도시 규모별(대도시, 수도권, 중소도시, 읍면지역), 설립유형별(국공립, 사립), 학교유형별(일반계, 실업계, 특목고)로 모집단의 0.5%를 유층 표집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를 짝지어 학년당 1학급 평균 인원만큼 표집하였다. 이에 따라 표집된 학교수는 90개교이고, 학교당 33명씩 표집한 결과, 표집된 학생과 학부모 수는 각각 2,970명씩 총 5,940명이었다. 단, 강남 지역은 사교육이 가장 번성한 곳으로서 전국과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10개 고교 학생 및 학부모 각각 330명을 추가로 표집하였고, 특목고 역시 10개교 학생 및 학부모 각각 330명씩을 추가 표집하였다. 회수율은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할 때 85.45%였으며, 응답자를 기준으로 할 때 79.01%로 총 5,736명(학생과 학부모 합산), 2,868부가 회수되었다. 연구 전반의 방과후 학교 및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관한 인식을 교차분석한 부분은 학부모의 응답결과 중 문항에 대한 결측치를 제외한 값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후반의 다층 회귀분석에서는 추가로 표집한 강남 지역 학교를 제외하고 특목고를 포함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1,880명 중 사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 1,131명의 응답결과만을 토대로 분석하였는데, 이는 사교육비를 실체에 가깝게 추정할 수 있다는

1) 본 조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 실태조사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2006년 사교육실태에 관한 조사지』를 통해 이루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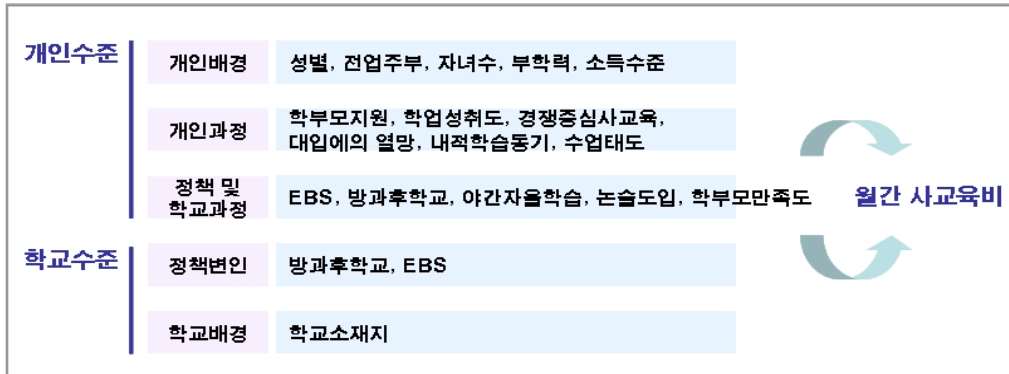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전반부의 분석대상에 비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추가표집된 강남지역 학교 학생들의 응답결과는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실제 다층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 사례수는 740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다층 회귀분석 자료에서는 결측치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사례수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측치로 인한 사례수 감소는 이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에 대한 학교소재지별, 설립유형 및 학교유형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학교소재지별, 설립유형별, 학교유형별 표집 및 회수율 분포

구분		표집인원	회수된 인원	회수율
지역별	서울	1,452	1,096	75.48%
	광역시	1,782	1,486	83.39%
	수도권	462	422	91.34%
	중소도시	2,046	1,638	80.06%
	읍면지역	858	568	66.20%
	강남(추가)	660	526	79.70%
설립유형별	국.공립	4,290	3,392	79.07%
	사립	2,970	2,344	78.92%
학교유형별	일반계고	4,818	3,904	81.03%
	실업계고	1,782	1,384	77.67%
	특목고	660	448	67.88%
합계		7,260	5,736	79.01%

2. 분석방법

학생의 방과후 학교 및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효과에 대한 인식 분석은 소득과 지역 변인에 대한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고, 사교육비 정책의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효과분석은 다층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층 회귀분석은 개인수준모형과 학교수준모형으로 나뉜다. 개인수준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인은 크게 개인배경·개인과정·정책 및 학교과정 변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개인수준 변인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학교수준모형에서는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정책변인을 삽입하고, 정책변인이 의미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만 배경변인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이는 정책변인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다. 정책변인은 개인수준과 학교수준 모두에서 삽입하였는데, 이는 정책이 개인수준에서와 학교수준에서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설정한 모형이다. 이는 [그림 1]과 아래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사교육비 경감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다층 회귀분석 모형

학생수준모형

$$Y_{ij} = \beta_0 + \beta_1(\text{성별})_{ij} + \beta_2(\text{부의학력})_{ij} + \beta_3(\text{학생자녀수})_{ij} + \beta_4(\text{소득수준})_{ij} + \beta_5(\text{전업주부})_{ij} + \beta_6(\text{학생성적})_{ij} + \beta_7(\text{학부모지원})_{ij} + \beta_8(\text{경쟁중심사교육})_{ij} + \beta_9(\text{대입에의열망})_{ij} + \beta_{10}(\text{내적학습동기})_{ij} + \beta_{11}(\text{수업태도})_{ij} + \beta_{12}(\text{학부모만족도})_{ij} + \beta_{13}(\text{논술도입})_{ij} + \beta_{14}(\text{야간자율학습})_{ij} + \beta_{15}(\text{방과후학교})_{ij} + \beta_{16}(\text{EBS})_{ij} + r_{ij}$$

학교수준모형

$$\beta_0 = r_{00} + r_{01}(\text{사교육비경감정책})_{ij} + \{r_{02}(\text{강남})_{ij} + r_{03}(\text{광역시})_{ij} + r_{04}(\text{수도권})_{ij} + r_{05}(\text{중소도시})_{ij} + r_{06}(\text{읍면지역})_{ij}\}^2 + u_{0j}$$

$$\beta_{1j} = r_{10}$$

$$\dots$$

$$\beta_{16j} = r_{160} \dots$$

학생수준모형에서 종속변수인 Y_{ij} 는 j 번째 학교의 i 번째 학생의 사교육비 규모를 나타낸다. 위의 식에서 성별, 학업성취 등은 독립변수이며 β_0 는 절편값, $\beta_1 \dots \beta_{16}$ 는 각 학생수준 독립변수의 추정값이 된다. 각 학생수준 독립변수 중 ‘부의학력’, ‘소득수준’,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EBS’, ‘학부모만족도’, ‘논술도입’ 등의 변인은 학교 내의 차이와 학교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상위층위 단위평균을 중심으로 중심값을 교정하였고, 나머지 변인에 대해서는 모두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교정하였다. r_{ij} 는 임의효과로서 평균 0과 분산 σ^2 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였다.

학교수준모형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학

2) 여기서 중괄호는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경우에만 포함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표기함.

교수준 변인을 투입하여 설명한다. β 값은 한 학교 안의 학생들의 한 달 사교육비 규모를 나타낸다. $r^2_1, r^2_2 \dots r^2_{106}$ 값들은 학교 수준에서 예측계수라 할 수 있으며 u_j 는 학교수준에서의 잔여값이다.

3. 변인설명

변인에 관한 설명, 문항내용 및 출처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 학생수준 변인 설명

변인명		내용 및 설문문항	출처 설문지	신뢰도 (Cronbach α)
투입 변인	성별	남학생을 0, 여학생을 1로 입력	학부모	-
	부의학력	부의 학력을 연수로 바꾸어 사용	학부모	-
	모의직업유무 (전업주부)	전업주부 1, 그 외의 경우 0	학부모	-
	소득수준	기술된 월평균소득의 자연로그 값	학부모	-
	학생자녀 수	자녀 중 유·초·중·고·대학교에 재학중인 수	학부모	-
과 정 변 인	학부모 지원수준	학부모의 실질적 학습지원활동을 5점 척도로 표기하게 하여 평균값 사용(7개 문항) : 집안의 공부분위기 조성, 공부지도, 입시정보수집, 공부방법지도, 성적관리, 진로상담을 위한 학교 방문, 진로에 대한 자녀와의 대화	학부모	.814
	학생성적	학생성적을 ①에서 ⑩으로 나눌 때, 학생이 인식하는 학생의 성적수준.	학생	-
	경쟁중심 사교육 성향	학부모의 경쟁중심적 사교육 성향을 5점 척도로 표기하게 하여 평균값 사용(6개 문항): 대학입학준비를 위해 사교육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어도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과외는 필요하다, 어떤 종류의 과외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소관이다,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취미활동은 하지 않도록 말린다,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다, 자녀가 학원에 가거나 과외공부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학부모	.745
	대학입학에 대한 열망	학부모의 자녀 대학입학에 대한 열망(5점척도 4개문항 평균): 자녀의 대학입학 이외에 나에게 관심사는 없다,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면 부모로서는 성공한 것이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는 들어가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학부모	.723
	내적학습동기	학생의 내적학습동기에 대한 동의정도를 5점 척도로 표기하게 하여 평균값 사용(4개 문항):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재미있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학생	.859
	수업태도	학교에서의 수업태도를 5점 척도로 답하게 하여 평균값 사용(5개 문항): 수업시간에 질문을 많이 한다,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한다, 앞으로 배울 내용을 예습한다, 숙제를 꼬박꼬박 해간다,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듣는다.	학생	.737

변인명		내용 및 설문문항	출처 설문지	신뢰도 (Cronbach α)
정책 및 학교 과정 변인	방과후 학교참여 여부	방과후 학교참여 1, 불참 0	학생	-
	EBS 참여여부	EBS 참여 1, 불참 0	학생	-
	야간자율학습 참여여부	야간자율학습 참여 1, 불참 0		
	학부모 학교만족도	학부모들의 학교활동에 대한 만족정도를 5점 척도로 표기하게 하여 평균값 사용(6개 문항): 학교는 자녀의 기초학습능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학교는 자녀의 창의력을 잘 길러주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열의가 있다, 학교에서는 자녀의 수준에 맞게 잘 가르치고 있다, 학교는 자녀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지도 잘 하고 있다,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한다.	학부모	.864
	논술대입	2008 대입의 논술에 대한 학부모 부담여부 부담을 느끼는 경우 1, 느끼지 않는 경우 0	학부모	-
결과 변인	사교육비 규모	사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한 달 과목별 사교육 비용 합산값의 자연로그값(학원종합반 포함)	학부모	-

<표 3> 학교수준 변인 설명

변인명		내용		
정책 변인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율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학교별 학생 비율		
	EBS 학생 참여율	EBS를 이용하는 학교별 학생비율		
배경 변인	학교 소재지	강남지역	강남지역 1, 그 외의 지역이 0	기준지역은 강남의 서울지역
		수도권	수도권 지역 1, 그 외의 지역 0	
		광역시	광역시 지역 1, 그 외의 지역 0	
		중소도시	중소도시 지역 1, 그 외의 지역 0	
		읍면지역	읍면지역 1, 그 외의 지역 0	

IV. 분석 결과

1. 인식분석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의 효과에 관한 인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의 참여 이후 사교육비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4%, 사교육비가 거의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43.7%, 방과후 교육비가 더 추가되었다는 응답이 22.2%로, 줄지 않았거나 오히려 추가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성공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하층 집단에서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응답이 41.2%, 중층 36.4%, 중상층 27%, 최상층 25.5%순으로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방과후 교육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교소재지별로는 읍면지역이 47.9%, 광역시 35.7%, 중소도시 35%, 서울 29.9%, 수도권 25.8%, 강남 23.1%로 읍면지역이 방과후 학교 실시 이후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4). 읍면지역과 소득수준 하층집단의 방과후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결과는 김홍원 외(2007a)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읍면지역과 소득계층의 상호작용 관계는 없는 것인지에 관한 추후연구를 필요로 한다.

<표 4> 방과후 교육활동 후 사교육비 변화

구분		많이 줄었다	약간 줄었다	거의 줄지 않았다	방과후 교육비 더 추가	전체	χ^2
고등학교	전체	283(12.6)	479(21.4)	979(43.7)	497(22.2)	2238	36.994***
	소득	하	95(18.7)	114(22.5)	201(39.6)	97(19.1)	
		중	88(14.3)	136(22.1)	268(43.5)	124(20.1)	
		중상	33(8.1)	77(18.9)	197(48.4)	100(24.6)	
		최상	14(7.6)	33(17.9)	89(48.4)	48(26.1)	
	학교소재지	서울	38(9.1)	87(20.8)	197(47.1)	96(23.0)	83.439***
		광역시	84(12.9)	149(22.8)	299(45.8)	121(18.5)	
		수도권	30(9.4)	52(16.4)	145(45.6)	91(28.6)	
		중소도시	77(11.7)	153(23.3)	281(42.8)	146(22.2)	
		읍면지역	54(28.1)	38(19.8)	57(29.7)	43(22.4)	
		강남추가	13(6.8)	31(16.3)	104(54.7)	42(22.1)	

***p<.001, **p<.01, *p<.05

나. EBS 수능강의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부모 응답결과는 긍정하는 의견이 38.8%, 부정하는 의견이 21.4%로 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없다는 견해보다 더 우세하였다. 이는 학부모의 사교육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설

문에 응답한 모든 학부모의 응답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한편 소득별·학교소재지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가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표 5). 이런 학부모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김병모(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부모 인식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5>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서의 효과인식

구분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보통이다	약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전체	χ^2
고등학교	전체	147(6.1)	369(15.3)	964(39.9)	768(31.7)	171(7.1)	2419	-
	소득	하	25(4.6)	72(13.1)	238(43.4)	172(31.4)	41(7.5)	14.950
		중	41(6.1)	94(14.1)	261(39.1)	219(32.8)	53(7.9)	
		중상	26(5.9)	81(18.3)	160(36.1)	142(32.1)	34(7.7)	
		최상	16(8.0)	38(19.1)	70(35.2)	60(30.2)	15(7.5)	
	학교소재지	서울	33(6.7)	82(16.5)	182(36.7)	162(32.7)	37(7.5)	17.290
		광역시	38(5.4)	102(14.4)	297(41.9)	223(31.5)	48(6.8)	
		수도권	24(7.2)	56(16.8)	119(35.7)	111(33.3)	23(6.9)	
		중소도시	42(6.2)	99(14.6)	276(40.6)	214(31.5)	48(7.1)	
		읍면지역	10(4.9)	30(14.8)	90(44.3)	58(28.6)	15(7.4)	
		강남추가	15(6.1)	53(21.7)	84(34.4)	77(31.6)	15(6.1)	

*** $p<.001$, ** $p<.01$, * $p<.05$

2. 실증분석

가. 기술통계량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술통계치는 <표 6>과 같다.

<표 6> 기술통계량

변인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인수준					
성별	740	1.38	0.49	1.00	2.00
전업주부	740	0.47	0.50	0.00	1.00
학생자녀수	740	2.03	0.57	1.00	5.00
소득수준	740	5.90	0.51	3.00	7.09
부의학력	740	14.17	2.64	6.00	21.00
학업성취수준	740	6.53	2.37	1.00	10.00

변인명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개인수준					
학부모지원	740	3.06	0.62	1.00	5.00
경쟁중심사교육	740	2.99	0.58	1.00	5.00
대입에의 열망	740	3.11	0.68	1.00	5.00
내적 학습동기	740	2.70	0.90	1.00	5.00
수업태도	740	2.71	0.66	1.00	4.60
학부모 학교만족도	740	2.94	0.63	1.00	5.00
방과후학교	740	0.68	0.47	0.00	1.00
논술도입	740	0.83	0.38	0.00	1.00
EBS	740	0.34	0.47	0.00	1.00
야간자율학습	740	0.71	0.45	0.00	1.00
사교육비	740	3.79	0.72	1.10	5.96
학교수준					
학교소재지					
강남지역	60	0.02	0.13	0.00	1.00
광역시	60	0.27	0.13	0.00	1.00
수도권	60	0.18	0.18	0.00	1.00
중소도시	60	0.20	0.34	0.00	1.00
읍면지역	60	0.07	0.25	0.00	1.00
방과후학교참여율	60	0.70	0.46	0.00	1.00
EBS 참여율	60	0.28	0.45	0.00	1.00

나. 모형분석결과

기초모형 분석 결과 개인수준 분산은 0.4319, 학교수준 분산은 0.09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수준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차이를 약 82%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수준모형 분석 결과, 개인수준 변인 중 학생자녀수, 학부모의 소득수준, 학부모의 지원, 학부모 학교만족도 등이 모든 다른 변인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수준 변인의 영향력을 약술하면, 학생자녀 수가 2명일 때 1명일 때보다 자녀 1인당 사교육비가 3만원 작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평균보다 100만원 높은 가정인 경우 평균인 가정에 비해 자녀 1인당 약 2만 8천원 더 지출하였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만족도가 1 표준편차 높을 때 약 4만원 사교육비를 덜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런 한 달 사교육비의 규모 차이는 개인수준 모형에서 제시된 모든 변인이 동일하다고 한 경우의 차이이므로 실제에서의 차이는 다를 수 있다(<표 7>의 개인수준모형 참고).

<표 7> 사교육비 정책효과 분석결과: 개인수준 및 학교수준 모형

	개인수준모형	학교수준모형		
		방과후학교모형	방과후학교+학교소재지모형	EBS 모형
절편	3.7806(0.0450) ***	3.7805(0.0439) ***	3.7796(0.0423) ***	3.7801(0.0454) ***
개인수준				
성별	0.0522(0.0704)	0.0504(0.0697)	0.0475(0.0697)	0.0512(0.0707)
전업주부	-0.0102(0.0484)	-0.0106(0.0484)	-0.0152(0.0484)	-0.0101(0.0484)
학생자녀수	-0.0763(0.0446) ~	-0.0745(0.0446) ~	-0.0701(0.0446)	-0.0764(0.0446) ~
소득수준	0.2499(0.0548) ***	0.2497(0.0549) ***	0.2496(0.0548) ***	0.2500(0.0548) ***
부의학력	0.0131(0.0107)	0.0131(0.0107)	0.0135(0.0107)	0.0131(0.0107)
학업성취수준	0.0049(0.0108)	0.0050(0.0108)	0.0044(0.0108)	0.0050(0.0108)
학부모지원	0.2016(0.0436) ***	0.2002(0.0436) ***	0.1963(0.0437) ***	0.2012(0.0436) ***
경쟁중심사교육	0.0113(0.0471)	0.0143(0.0471)	0.0123(0.0471)	0.0113(0.0471)
대입에의 열망	0.0463(0.0401)	0.0442(0.0401)	0.0449(0.0401)	0.0459(0.0401)
내적 학습동기	-0.0075(0.0308)	-0.0058(0.0308)	-0.0074(0.0308)	-0.0078(0.0308)
수업태도	0.0021(0.0438)	0.0013(0.0438)	0.0043(0.0438)	0.0024(0.0439)
학부모 학교만족도	-0.1477(0.0413) **	-0.1479(0.0413) **	-0.1478(0.0413) **	-0.1476(0.0413) **
방과후학교	0.0160(0.0686)	0.0160(0.0686)	0.0157(0.0686)	0.0160(0.0686)
논술도입	0.0284(0.0661)	0.0283(0.0661)	0.0294(0.0661)	0.0285(0.0661)
EBS	-0.0165(0.0544)	-0.0164(0.0544)	-0.0164(0.0544)	-0.0165(0.0544)
야간자율학습	-0.0485(0.0753)	-0.0482(0.0753)	-0.0477(0.0753)	-0.0485(0.0753)
학교수준				
거주지역				
강남지역			0.8918(0.3383) *	
광역시			0.1248(0.3675)	
수도권			0.2918(0.2442)	
중소도시			-0.0419(0.1324)	
읍면지역			-0.1891(0.1836)	
방과후학교참여율		-0.1742(0.0958) ~	-0.1211(0.1001)	
EBS 참여율				0.0406(0.0996)
학교간 변량	0.0841	0.0783	0.0702	0.0858
학교내 변량	0.3972	0.3976	0.3972	0.3973

~ < .10, * < .05, ** < .01, *** < .001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른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수준에서 방과후 학교참여율과 EBS 참여율만을 각각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추가하였을 때, 사교육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는데,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 변인의 효과는 학교소재지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표 7>의 ‘방과후 학교 모형’과 ‘방과후 학교+학교소재지 모형’ 참고). 이는 서울 강남지역과 강남 외 서울지역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낮은 반면 사교육비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을

수록 사교육비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나 이는 방과후 학교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사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서울 지역의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동일 지역 내에서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규모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EBS 수능강의 참여율을 추가하였을 때, 사교육비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7> EBS 모형 참고). 이는 EBS 강의 참여율에 따라 사교육비가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결과 사교육비 경감 정책은 사교육비 규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단기 대책인 EBS 수능강의와 방과후 학교 정책을 평가하되, 인식조사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을 포함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터하여 방과후 학교정책과 EBS 수능강의 정책 각각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방과후 학교 정책 효과

방과후 학교정책과 관련하여 인식조사와 다층 회귀분석 결과,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인식 조사 결과 방과후 학교 이후 사교육비가 ‘줄지 않았다’는 응답과 오히려 ‘추가되었다’는 응답이 ‘줄었다’는 응답에 비해 높았으며, 다층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지역을 고려한 경우 방과후 학교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사교육비 규모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와 일면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시범학교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거나(김홍원 외, 2007b) 대부분 초·중·고등학교를 분리한 인식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이종재 외, 2003; 최상근 외, 2004; 홍후조 외, 2006). 이는 연구 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는데 방과후 학교에 대해 초등학교급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만을 분리하여 인식조사를 한 결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편, 김홍원·진미경(2007)과 김홍원 외(2007a)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급에서도 사교육비 경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지역적 특색과 계층적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김홍원·진미경(2007)의 연구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에 관련된 것이고, 김홍원 외(2007a)의 연구는 저소득계층과 관련된 연구라는 점에서 모

든 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 결과는 실제로 본 연구의 교차분석에서 읍면지역과 저소득계층에서 방과후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이 높은 결과와 그대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최근 연구 중 방과후 학교의 정책효과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고등학교 급에서 방과후 학교 이후 사교육비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변화없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홍원, 2007a: 26). 이런 점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기존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고 보기 어렵겠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방과후 학교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실제 활동 내용의 학교별 차이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과후 학교는 전개 및 확대 과정에서 초기의 특기·적성 교육만으로 제한되었던 개념을 교과 보충학습까지의 개념으로 확대하는 등 방과후 학교 자체에 관한 개념규정 상의 혼란이 있었으며, 실제 방과후 학교 활동 역시 학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개념 및 실제 활동 상의 혼란은 결국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앞으로 방과후 학교의 정책 효과에 관한 지속적인 학교급별, 지역별, 계층별 연구를 통해 또 다른 결론을 내리거나 이 결론을 확증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EBS 수능강의 정책 효과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절감효과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다층회귀분석 결과, EBS 수능강의는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던 선행연구결과와(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5.02.17, 김지하, 2005) 상반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EBS 수능강의가 시작되었던 시점과 현재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현재 EBS 수능강의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실제 사교육비 경감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런 한계에 따라 실제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검증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선행연구였던 이희수(2005)의 연구에 대해 재검토해보면, 그의 연구가 4월과 11월의 사교육비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 것인데 사교육비가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실제 절감효과라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즉, EBS 수능강의의 효과에

대해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강의를 주로 듣는 시기가 고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교 2학년을 설문대상으로 한 것은 타당성을 갖는다. 넷째, EBS 수능강의의 시작이 2004년 4월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사시점인 2006년은 EBS가 다른 사교육업체의 경쟁에서 밀리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EBS 수능강의의 초기시점과는 달리 수많은 경쟁업체가 생겼고,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한겨레, 2007.10.30). 즉, EBS 수능강의의 초기효과와 증장기효과 차이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이상에서 사교육비 경감정책 중 방과후 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에서도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EBS 수능강의의 경우 인식조사에서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실증 자료를 분석한 결과 EBS 수능 역시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중 단기대책이었던 방과 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가 모두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책목표에 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론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방과후 학교의 개념 및 실제 활동 상의 혼란, 종단적 자료의 부족, 조사시점 및 조사대상 선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본 연구의 한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의의와 관련하여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가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가 의미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방과후 학교는 저소득계층과 읍면지역에서 매우 긍정적인 교육활동으로 환영받고 있어 방과후 학교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 학교를 통해 학생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인적 인간으로서의 교육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 또한 크다. EBS 수능강의 역시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EBS 수능강의 또한 취약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과후 학교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라는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연구의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에 대한 정책평가는 이들 정책이 너무 많은 혹은 관련이 없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설정하였기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방과후 학교와 EBS 수능강의는 정책목표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이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4).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대책**. 교육인적자원부.
- _____ (2004). **학교교육혁신으로 사교육비 줄인다**. 2004.02.18. 보도자료.
- _____ (2005).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으로 학원수강생수는 감소, 저소득층 학생 교육혜택은 증가**. 2005.02.17. 보도자료
- _____.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
- 김명수 외(2004).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안)**. 교육인적자원부
- 김병모(2007). 교육 수요자-공급자 관점에서 EBS수능강의의 효과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초록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3(2). 229-255.
- 김지하(2005). **대학입시과외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홍원(2007). 방과후학교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와 내실화 방안. **방과후 학교,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확대방안**. 국회의원 이경숙, 좋은교육포럼. pp.5-33.
- 김홍원 · 진미경(2007). **2006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 외(2007a).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성과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원 외(2007b).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및 성과지표 개발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리서치앤리서치(2006). **방과후 학교 운영성과 조사 결과보고서**. 리서치앤리서치.
- 손경애(2004). EBS 수능강의에 대한 정책 평가. **2004년도 한국교육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행정학회. pp. 183-205.
- 엄기형.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비 경감 기묘한 엇물림의 '정치학'. **방과후 학교, 사교육비 절감효과와 확대방안** 국회의원 이경숙, 좋은교육포럼. pp. 34-43.
- 이종재 외(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이희수(2005). EBS 수능강의 분석 및 발전방안. **e-러닝 활성화를 위한 EBS 수능강의 발전방안**.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중앙대 교육문제연구소.
- 이희수 외(2004). **e-러닝 활성화를 위한 EBS 수능강의 사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전인식 외(2006).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BS 수능강의의 2주년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정기오(2007). 방과후 학교 도입의 정책적 배경과 의미. **방과후 학교의 이론적·철학적 기반 정립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pp.1-32.
- 정봉주(2006). EBS 수능 강의 2년 평가와 문제점. **EBS 수능강의 2년 평가와 향후과제**. 국회교육위원회 · 한국언론학회. pp.48-56.
- 최상근 외(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순영(2005). 과학적인 정책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향후 과제가 나오길. **e-러닝 활성화
를 위한 EBS 수능강의 발전방안**. 중앙대 교육문제연구소. 79-88.
- 한건우 외(2005). 공교육을 위한 EBS 수능강의 개선 방안.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1(4).
pp.33-55.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04). **EBS 수능강의 실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홍후조 외(2006).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만족도 분석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자료

- 국정브리핑. **방과후학교로 사교육비 월 6만 2000원 줄었다**. 2007.03.06.
- 국정브리핑. **과외잡는 '미드필더' EBS와 방과후학교**. 2007.11.03.
- 한겨레신문. **'EBS 수능강의 27%만 선호, 사교육비 경감대책 흔들**. 2007.10.30.
- 한국일보. **'방과후 학교' 도마에**. 2006.05.17.

Abstract

Policy Evaluation on Private Tutoring Countermeasures : After-school Program and EBS KSAT Teaching

Park, So-Young(KEDI)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valuate private tutoring cost saving policy of Roh Administration based on collected data as well as education consumers' perception. The policies to be evaluated are after-school programs and EBS KSAT(Korean Student Aptitude Test) teaching. The specific questions to be answered are as follows: 1) How students and parents perceive after-school programs and EBS KSAT teaching? 2) Do the policies contribute to saving private tutoring costs?

After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after-school programs are not effective policy instrument to save private tutoring cost based on both perception and reality. The EBS KSAT teaching is expected to save private tutoring cost, but does not reduce private tutoring cost in reality. Although these two policies are not effective instrument to achieve policy goal that is to save private tutoring cost, they are still meaningful in that they offer meaningful educational experiences to reduce education gap.

[key words] policy evaluation, private tutoring countermeasure, after-school program, EBS KSAT teaching